

인도 타이어 시장

1. 05년 타이어 산업 현황

인도의 타이어 메이커는 05년 현재 43개사(58개 공장)로써, 생산량은 103만톤, 수출은 380백만\$을 기록했으며, 현재 세계 20대 타이어 메이커 중 3개사가 인도 메이커이다.

인도의 타이어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05년 수입 : 승용차 및 짐차용 57만개, 버스 및 로리용 33만개 등), 래디얼화도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인도는 소형차 생산 중심지로서 다국적 자동차메이커 진출 등으로 06~10년간 연평균 승용차가 18%, 상용차는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어 래디얼화는 승용차용 타이어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 래디얼화율은 06년 90%, 10년 97%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트럭·버스용은 06년 2%, 10년에 가서는 5~1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이어 수입은 향후 경기호조에 따른 타이어 수요 증가와 관세율 (현재 12.5%) 인하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 타이어 산업 전망

06~10년 타이어 생산은 동기간중 GDP 증가율 8~10%에 기인하여 연평균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연평균 10~15% 증가가 전망된다.

<05년 타이어생산 현황>

(단위: 천\$)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짐차용	오토바이용	스쿠터용	트렉터용	합계
11,765	4,400	12,930	1,313	20,158	9,658	2,409	62,633

우크라이나 타이어 시장

(1) 타이어 수입 수요 급증

■ 연간 2억5천만 달러 시장 수요

우크라이나의 타이어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2억5천만 달러(소매가기준)이며 수입산과 국산의 경쟁이 심하지만 수입품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2005년 수입산은 1억\$을 돌파 하였으며, 이 수치는 매년 약 40%증가한 실적이다. 한국산 수입 급증하고 있으며 우회수출 포함시수입시장의 약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시장 동향

친 EU 친 미국 경향에 편승하여 승용차 및 차량 용품 고급화 성향에 따라 외국산 고급 타이어 선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수입 외국산은 미쉐린, 피렐리, 콘티넨탈, 굿이어 등임. 특히 이 브랜드들의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은 DNEPROSHINA, ROSAVA, VALSA 등 3개 브랜드인데 연간 생산은 약 8백만개임. 이중 승용차용 타이어는 약 20%임.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 수요의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소매가를 보면 피렐리 P 400 195/70R14 가 70\$ 수준, 미셸린알파인 205/60/R16이 \$100 수준이다.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승용차 용	트럭·버스용
미쉐린	11%	5%
굿이어	6%	5%
피렐리	10%	N/A
콘티넨탈	8%	N/A
브리지스톤	N/A	0%
재생	N/A	11%
국내산	45%	60%

(자료원 : MR. Vitaly Oral, Techno Trading Co.)

■ 시사점

〈한국산 진출 급증〉

(단위: 천\$)

구분	04년	05년
승용차용	215(2,250%)	561(161%)
트럭·버스용	21(△31%)	1032(4,870%)
계	236	1,595

(주) ()는 전년비 증감율
(자료원) KOTIS 통계

국산의 경우 상기 통계에 나타나듯이 최근 급격히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진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산 타이어의 인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품질에 대하여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출하여 시장을 구축한 유럽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함으로 증가 시장 공략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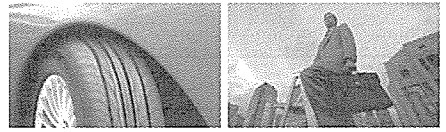
〈KOTRA 키예프 무역관, 06.5.5〉

(2)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타이어 등 덤핑 조사

■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타이어, 인조모피, 보플 직물, 슬레이트 덤핑 조사 착수

우크라이나 무역위원회에서는 5월 17일자로 러시아산 타이어에 대해 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Rosava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2005년도에 수입된 러시아산 타이어가 국내산보다 저가로 판매돼 Rosava사의 생산이 24.9% 감축됐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회는 같은 일자에 벨로루시산 인조모피과 보풀이 있는 직물에 대해 2001년 수입분까지 소급해 반덤핑 관세 부과기로 결정하고, 인조모피의 덤핑관세는 179.7%,



보풀이 있는 직물은 53.3%이다. 이 제품에 대한 덤핑제소는 2001년도에 Ukrainian Artificial Fur Plant에서 제조한 사안으로 이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같은 일자에 러시아산 지붕용 슬레이트에 대해 덤핑여부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Ivano-Frankivshcement, Volyn-Shyfer, Kramatorsk Shyfer, Techprom 등 4개사에서 제조한 이 건물은 2005년도 수입된 타일 1개당 판매가가 러시아에서는 \$2.44인데 반해 우크라이나에서는 \$1.99로 낮은데 대한 제소이다.

■ 한국산 안심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는 2005년 무역적자 18억4000만달러, 2006년 1~3월 무역적자 7억6900만달러로 급증세를 나타내자 우크라이나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에서는 수입억제를 위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덤핑부과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의지를 2006년 4월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무역을 보면, 2004년 무역 적자에서 2005년 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고, 2006년 1~4월에는 수출이 48% 증가한 반면, 수입은 2.4% 증가에 그쳐 무역흑자가 1억6000만달러로 급증함.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로 수출이 급증한 승용차, 자동차 부품, 무선 전화기, 섬유기계, 냉장고, 편직물, 진공청소기, 폴리에스터 섬유 등은 우크라이나의 수입 규제 가능성에 항상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기 2005년 5월 17일자 조치로 러시아에서 생산되어우크라이나에 수출되는 한국산 브랜드 제품이 타격 받을 가능성이 높다.

〈KOTRA 키예프 무역관, 06. 5. 18〉